

사회

# 잠자던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 영산강 제방서 옷 벗겨진 채 발견... 장과열 증상

초등학교 여학생이 과한에 납치된 뒤, 영산강변 제방길에서 성폭행당한 후 옷이 벗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나주시 모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집안 거실에서 덮고 자던 이불과 함께 실종됐다는 A양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납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영산강변에 수사본부를 차린 뒤 곧바로 경력 160여 명을 동원해 이날 정오까지 A양의 집 주변과 시내 곳곳을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A양은 경찰 수색 6시간여 만인 오

후 1시께 A양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30m 가량 떨어진 나주시 영강동 영산강 강변도로 제방길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로 옷이 벗겨지고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숙옷 등 옷가지가 영산강 둔치 주변에서 발견되고 A양의 몸에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점을 발견하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진단 결과 A양은 대장염이 과열되고 국부가 5cm 가량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자다 깨어보니 얼굴을 모

르는 아저씨가 이불째 안고 곁고 있었다”며 “살려달라고 하자 ‘삼촌이니까 괜찮다. 같이 가자’며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부상을 입은데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감안해 조사를 중단하고 응급수술을 받게 했다.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전날 밤 11시께 PC방에 갔다가 이날 새벽 2시30분께 귀가했을 때는 딸이 있었지만 새벽 3시께 화장실에 가면서 딸이 보이지 않아 아빠와 함께 안방에 서 자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A양의 부모는 “아침에 일어나 딸

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욕상 등 집 주변을 찾아봤으나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성폭행 전과자나 정신질환자 등을 상대로 탐문하는 한편 인근의 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일단 주변 인물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범행시간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A양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 “지자체, 성범죄 피해 배상 책임”

##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8900만원 지급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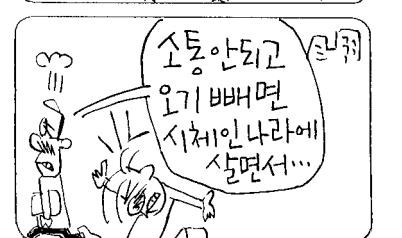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 법인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물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범행시간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A양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A양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후유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질 수 없게 된 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나원침 (8643) 김종두



#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벌금 50만원으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1년 매월 5만원씩 70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 ‘2PM’ 다크 음주운전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문찬석 부장판사)는 30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아이돌 그룹 ‘2PM’의 태국 출신 멤버 다크(24)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경찰에 따르면 다크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경찰은 “닉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 수칙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며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자·교회지붕 폭삭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무너져 내린 광주 서구 서창동 발산마을 정자(위). 30일에는 태풍 ‘덴빈’의 여파로 해남을 남외리 한 교회 지붕이 파손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교사가 여중생에 술 강요 성추행

## 징계 전력도 있어... 광주교육청, 중징계 요구

여학생과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던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또다시 성추행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광주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이 학교 교사인 A씨가 여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학교측은 “A교사가 학생들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B양과 상담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B양을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성추행하다 B양의 거부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교사는 음주 상태에서 맥주 1병을 가져와 B양에게 마시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일부 행위가 있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학

교 자체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 하고, 시 교육청 감사팀은 인사부서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도 같은 내용을 접수해 조사를 하고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중학교 수련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 징계를 받고 전보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애초 진술을 부인함에 따라 강경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A교

사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이런 ‘전력’이 있는 교사에게 또 담임을 맡겼고 시 교육청도 해당교사에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추행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일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장물 스마트폰 매입 일당 검거

## 대구서 광주로 원정와 도난 폰 사들여 되팔아

대구에서 광주로 원정와 도난·습득 스마트폰을 사들인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30일 택시기사를 상대로 도난·습득 스마트폰을 사들여 고액을 받고 밀수출업자에게 다시 되팔 혐의(특가법상 장물취득)로 김모(2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윤모(22)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도난·습

득 스마트폰을 팔아넘긴 혐의로 황모(53)씨 등 택시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일당 4명은 16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서 광주로 원정와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도난·습득 스마트폰을 10만원에 사들여 다시 밀수출업자에게 개당 40만원씩 받고 되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6300만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70대를 중고가 500여만원에 사들여 대구지역 밀수출업자에게 2800여만원을 받고 되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보해저축은 비리 인사 항소심도 중형

## 오문철 7년·임건우 3년

광주교법 형사 1부(이창환 부장판사)는 30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비교해 추징금만 2억50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박종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저축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해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리포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전사령 전 경남 합양군수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 · 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풀파주, 낫파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